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01 호 현대불교  
2008년 10월 15일(음력 9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 A21

#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실상 그 자체를 믿으라!

### 주인공도 실상이 아닌 이름인데

**질문:** 스님께서는 본래 주인공도 실상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본래 없는 주인공을 지극하게 믿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믿어야 열쇠를 맡기죠? 믿지 않으면 열쇠를 맡길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내가 '참나'인 주인공을 진실로 믿는다면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거기를 믿고 맡길 수가 있죠. 주인공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고 실(實)은 아님이다만... 그래서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실상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인데 바로 거기가 놓아 버린다면, 믿고 놓아 버린다면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차가 있고 기름이 있어도 차는 운전수가 없고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차와 운전수와 기름이 삼합(三合)이 되어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공존하니까 색이 공이 자 공이 색이다 하는 거고 그렇게 공존하는 것을 공이라고 할 때 거기가 몰려 놔 버리면 그대로 공존해서 바로 일체 유생 무쌍이 한데 합친 그 능력의 의사가 되니 나는 손을 까딱 안 하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당하는 거지 누가 가난을 주고 뺏아 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 말에 어느 부자가 복을 지은 거라고는 동네에서 누가 어린애 낳는 데 고깃집 한 단 준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자가 죽어서 가 보니 부자 복(福) 창고에 질 한 단밖에 없더라 씬으로, 그런 마음을 썼으니 질 한 단만 있을 수밖에요. 자기가 준 대로, 한 대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을 해 보시겠지만 수많은 사람한테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또 안 당한 사람도 있고 사기를 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공에 놓는, 방학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은 나중에는 참자의 감동이 와서 그걸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그럴 겁니다. 또는 안 그런다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한다 하는 마음조차도 없이 슬그머니, 보이지 않는 데서, 오손에 칠보(七寶)가 가득히 차 있듯이, 가난도 면할 것이고 병도 물러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자기의 뿌리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그 뿌리에 자식의 뿌리도 있고 부모의 뿌리도 있는데 뿌리는 다 똑같이 공이다 이겁니다. 만 강에 달이 비쳐도 그 달이 한 달에서 비쳤지 여러 달에서 비춘 게 아니듯이 말이죠. 만 강에 달이, 수많은 달이 비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 달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달이 만 강에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달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달이 하나의 달일 뿐이냐? 아니다. 만 강에 비칠 수 있는 달이다. 그러다만 때로는 달빛이 만 강에, 즉 말하자면 만 달이 될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달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달이 만 개가 될 수가 있고 이렇듯이 인간의 마음도 한마음이 될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 아님이 하나도 없을 때는 바로 여러분과 같이 한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자꾸 찰나찰나 나투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도 없느니라 하고 바로 '무(無)'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니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공에다가 놓아 버리세요. 모든 것을 공에다가 놔 버리라는 것은 왜냐? 예를 들어 만약에 장님이 있다고 한다면 장님은 지팡이 없이는 못 갑니다. 그러니 공에다가 놓지 않는다면 장님의 눈을 밝게 할 수는 없고 겨우 지팡이 하나 쥐어 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공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가 다 놔 버린다면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 뜻이 풀려 공도리(空道理)도 알 수 있으며, 바로 인에 의해서 연도 생기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연기법(緣起法)이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쓰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연기라고 할 때, 그 연에 따라서 인연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하고 듣고 보고 하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에 다니면서 건성 다니지 마시고 정진 열심히 하시고 진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정신을 차려서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름이라고 깔보려거든 아예 당신 이름을 불러요. 성을 부르든지. 김 씨면 김 씨, 박 씨면 박 씨, 다 당신이 이날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안되는 일도 내가 알아서 하고 잘되는 일도 내가 알아서 해!' 하고 안되는 거 되는 거 다 거기가 놓는다면, 맡겨 놓고 참 믿는다면, 물려서 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훌륭히 자기의 생명수의 근원이 스스로서 나올 것입니다.

### 타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지

**질문:**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그림 · 최주현

종교는 다 좋은 말씀이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정말 이 불교만 믿어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저희같이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말 잘했어요. 궁금하걸랑 내 대답해 주죠. 외국으로 다니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를 볼 때 티베트 불교든지 알라신교든지 뭐 가톨릭교, 기독교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만나서 토론도 해 보고 또 이렇게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불교(佛敎)라는 단어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일체, 하다못해 이 풀 한 포기 생명도 전체 생명이 불이예요. 불!

그리고 말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하고, 뜻과 뜻으로 통하고 통으로 통하고 그러한 거를 통해서 만나서 우리가 서로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 교(敎)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단어는 방편 아닌 방편으로써 그것은 이름이자 진리예요. 그대로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니예요. 그러니만큼 우리는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그 뜻을 다르게 하고 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주체에 근본이 있는 거지 바깥에 근본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외국에도 가 보면 여기 기독교든지 뭐, 가톨릭교든지 많이 이렇게 토론하러 오셔요. 그런데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왜? 불교고 기독교고 가톨릭교고 다른 게 없이 선지식은 전부 "탄 타의 의 사람을 믿으면 마구니 소굴에 드느니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부터 알라. 주체는 바로 너한테 있느니라. 너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고 나가는 선장, 바로 그 자체가 주인이니라. 그

주인부터 알아야 이 전 우주의 섭리, 하나로 돌아가는 이 이치가 바로 거기에 직결이 돼 있으니까 알 수 있느니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나 불교를 막론해 놓고 '아이고! 잘못해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부처님!' 하고 찾거든, 이거는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교든 간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 너부터 알아 이 소리예요. 어떤 종교를 막론해 놓고 그 이름을 떠나서 너부터 알아 이 소립니다. 못듣든지 잘못든지 네가 이 세상에 형성이 됐으니가 상대가 있고 종교도 있고 세상이 있는 거지, 네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부터 알아야 이런 거죠.

내 몸속에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천차만별로 의식들이 많고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서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것을 듣고 내는 물질세계, 정신세계와 더불어 같이 모두 중용을 할 수 있는, 듣고 내고 하는 그런 선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을 바깥에서 찾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죠. 부처님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데, 만날 바깥으로 찾으니깐 그런 것이 내가 왜 그러겠어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그렇게 해 냈는데도 그렇게 모두 기복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이치가 있었죠. 물론 불교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다 그렇죠. 이조 때에 탄압을 받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해산시키고 이러한 바람에 스님네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방편을 쓰고 있었던 그 습이 아직까지도 그 모양 내려오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고쳐야 될 거고 개선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할 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이거고 저거고 이 종교 저 종교를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르게 찾으니까 내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아, 자기 몸뚱이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있고 그 이름이 모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어머니의 이름이 있고 할머니의 이름이 있듯이 그렇게 이름만 달았다 뿐이지 근본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믿고 나를 찾아라." 이런 거지, 자기 몸뚱이를, 그 고깃덩어리를 찾고 믿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본래는, 각자 너를, 진짜로 네 주인을 믿어라 이런 거지. 그런 건데 편집을 잘못했다가 뭐가 잘못했던 게 있었겠죠. 그러니 구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22면으로 계속

죽음은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신재 역음 · 문화영 영자 / 336쪽 · 값 12,000원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수신재 역음 · 356쪽 · 값 12,000원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현대불교 창간 14 주년을 축하합니다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성: 행동성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물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민국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장사 강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림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장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시골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들문인족제위원의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